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내 아이 불자 만들기
부모의 역할

엄마, 아버지가 천 포교사이니까

H. 클레르의 저서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불교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진리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귀한 자식들에게 그런 값진 선물을 선사하지 않겠는가?”하고 반문한다.

아이일 때는 업고서라도 절에 다니던 부모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차 불교와 멀어지는 것을 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종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할지 몰라 불교에의 호기심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집안이 불교여서 모기향을 보고도 절하고, TV 속 스님을 보고도 절하던 5살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친구 따라 교회에 가겠다고 한다. 멀찍히 절에 잘 다니던 아이

가 사춘기가 되더니 이유 없이 절에 가기를 꺼려한다.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중서 박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은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소성”임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이 6살 이전에 불교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 증흥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내 아이가 처음 만나는 포교사는 바로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떻게 불자의 길을 가게 할지 상담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 친구 따라 교회에 가겠다고 해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친구 따라 뒤편하는 시기입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와 즐길 수 있고, 평소 학교나 집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춤을 추고 싶어서, 드림을 쫓을 수 있으니까, 이성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이유로 교회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막연히 절에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엄마가 가는 절이니까 같이 가서 넌 절 마당에서 놀아라” 하는 것은 한 두 번은 통하겠지만 쉽게 질려하겠죠. 아이들에게 불법을 접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어린이법회나 학성회법회에 데리고 가보세요. 법회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은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절에서도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이성친구들이 즐비하니깐요. 스님, 부처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게 된 아이들에게는 절은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됩니다.

□ 불교는 지루하다고 합니다.

절에만, 법회에만 아이를 맡겨둔다고 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책이나 경전을 던져주면서 “읽어보면 다 알아” “더 크면 네가 스스로 느낄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아이들은 축제와 파티를 좋아합니다. 초파일 성도일 열반일 포살일 등을 모두 흥겨운 파티의 장으로 열어주면 어떨까요.

초파일이나 성도일에는 화려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절에 가도록 유도합니다. 요즘 연등축제는 아이들이 흥겨움을 느낄만하죠. 구경하는 것으로 흥미가 안잔다면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 각종 참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온몸으로 즐기게 하세요.

발우공양을 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집에서 대접 4개를 늘여놓고 발우공양을 즐기는 것도 독특한 경험이 되겠죠. 사찰음식만 들기 체험에 도전해 사찰음식의 유래도 배우고 온가족이 마음껏 사찰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포살일은 경건한 날로 만듭니다. 하루 중

일 채식만 하거나 죽을 먹고, 포살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되돌아보는 날로 정해보세요. 잠잠한 웃을 입고 2시간 정도 묵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자녀가 어리다면 온 가족이 함께 자연으로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요. 싹타르타 태자가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을 배웠던 직접 자연 속에서 보여주며 생로병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줍니다. 소풍은 어린이들에게 동료 인간과 동물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 ‘왜 불교를 믿어야 하나’며 ‘부모가 불자라서’는 이유가 안 된다고 대들어요.

아이에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생활 불교가 정착된 미얀마를 살펴볼까요. 미얀마에서는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쯤이면 함께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방법을 부모가 몸소 보여주으로써 부처님과의 인연을 자연스레 심어줍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

들, 기도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젊은 연인들, 친구들, 언제나 사원에는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사원이 그네들과 가까운 곳에 있기에 언제든지 부처님이 그리우면 사원을 찾을 수 있고, 부처님을 하소연하고 싶으면 부처님을 뵈 수 있고, 부처님을 뵈고자하면 언제든지 불경 들고 연주 들고 사원을 향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어렸을 때 아무 설명 없이 절에만 데리고 다닌다고, 우리 집은 불교집안이라고 너무 불교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은 논리적인 설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절에 데려갔을 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절은 무엇 하는 곳인지,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법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행편이 안 된다면 자녀의 연령에 맞는 쉬운 불서들을 권해주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만화 자타카>라든지 불교동화 등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강지연 기자

■ 청소년법회 여는 사찰

사찰명	전화번호
서울 금강정사 학생회	(02)898-8200
안양 한마음선원 학생회	(031)470-3100
여주 수호사 학생회	(031)882-4802
대구 대관음사 학생회	(053)474-8228
대구 불광사 학생회	(053)792-1353
부산 해원정사 학생회	(051)866-7771
서울 약사사 학생회	(02)2662-7551
서울 봉은사 학생회	(02)511-6070
서울 능인선원 학생회	(02)577-5800
서울 화계사 학생회	(02)902-2663
서울 약수사 학생회	(02)877-7514
서울 영화사 학생회	(02)444-4321
서울 금정사 학생회	(02)395-0042
서울 옥림암 학생회	(02)395-4031
서울 정토법당 학생회	(02)587-8993
서울 금화사 학생회	(02)357-9031
서울 진관사 학생회	(02)359-8410
서울 조계사 학생회	(02)720-1390
서울 무진법장사 학생회	(02)971-0303
남양주 봉선사 학생회	(031)527-1951
수원포교당 학생회	(031)245-9670
의왕 청계사 학생회	(031)426-2348
화성 신흥사 학생회	(031)357-2695
인천불교회관 학생회	(032)442-9910
인천 법명사 학생회	(032)577-5108
인천 수미정사 학생회	(032)427-8400
속초 원각사 학생회	(033)635-0106
평창 극락사 학생회	(033)332-2308
계룡대호국사 학생회	(042)551-0906
음성 광명선원 학생회 (한마음선원 금양지원)	(043)877-5000
영동 금성사 학생회	(043)743-1110
청주 관음사 학생회	(043)256-6254
김천 직지사 학생회	(054)436-6013
김천 대흥사 학생회	(054)453-7424
상주 삼각사 학생회	(054)535-2881
경주 분황사 학생회	(054)742-9922
부산 범어사 학생회	(051)508-3122
부산 관음사 학생회	(051)294-9300
대구 삼보사 학생회	(053)768-5220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 포교당 학생회	(054)746-2211
원도 신흥사 학생회	(061)554-2634
해남 대흥사 학생회	(061)536-7427
익산 관음사 학생회	(063)854-1578
장수 삼관사 학생회	(063)353-0396
제주 월라사 학생회	(064)767-0269
제주 한마음선원 학생회	(064)727-4662

* 학생수 20인 이상 학생회입니다

설레임으로 떠난 소중한 여행, 환희심 넘치는 순례, 선택에 후회없는 여행, 이 모든 것이 대승항공여행사의 마음입니다.

대승항공
www.dsatour.com

문의 02)730-0202

- 부산 (051) 245-0108
- 대전 (042) 583-0108
- 대구 (053) 572-0108
- 광주 (062) 361-0108
- FAX (0 2) 730-4141

관음도량
보타락가산/구와산/쌍산/
향주/상해 7일 120만원

지장도량
구와산/쌍산/향주/
상해 5일 85만원

문수도량
오대산/대동/석가장/
북경 6일 99만원

보현도량
아미산/성도/낙산/
대륙 5일 95만원

이슬열차 1박2일 9일
성도/낙산/대동/성도
165~185만원

정릉비리길성지순례
서안/남주/가곡관/동원/기일
/투르판/우루무치 165~185만원

운남성
관영/여강/대리/계축산
6일 110만원 / 9일 130만원

데판
대륙/대동/고용/화련
4일 75~85만원 / 6일 85~95만원

아프리카 4개국 15일 699만원
케냐/탄자니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울형 핵심일주 6개국 12일 399만원
독일/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프랑스

중남미 7개국 20일 659만원
멕시코/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
칠레/쿠바/페루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69만원
오克蘭드/크라이스트처치/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시드니

탄생에서 입멸에 이르기까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①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②불적지 한시요리사 및 한식과 한지시 제공 ③인도전선 한국여행사 직원 동행

인도/네팔 10일~15일 199~295만원

10일 : 인천/델리/쉬라바스티/롬비니/쿠쉬나기르/사이살리/나란다/라지گیر/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1월 12일, 19일, 22일, 26일, 28일, 29일 / 12월 24일, 27일 / 1월 10일, 14일, 15일 / 2월 25일, 26일 / 3월 10일, 11일, 13일
15일 : 인천/롬비니/오랑가비드/델리/아잔타/산치/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گیر/나란다/바이살리/게사리아/쿠쉬나기르/쉬라바스티/카필라바스투/롬비니/포카리/카트만두/인천

인도 특별 전용열차 성지순례 11일 175~205만원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하파르니르만 열차를 이용하여 부처님 성지지역을 참배 할 수 있는 성지순례전용열차입니다.
인천/델리(호델박)/델리/가야(열차박)/부다가야(호델박)/가야/바라나시(열차박)/고락푸르(열차박)/쿠쉬나기르(호델박)/고락푸르(곤대(열차박)/곤다/아그라(열차박)/델리(호델박)/인천(기내박)

▶출발일 : 10월 19일 / 11월 2일, 16일, 30일 / 12월 14일 / 1월 4일, 18일 / 2월 21일, 22일 / 3월 7일, 21일

선종사찰의 발자취를 따라 초조달마에서 육조혜능까지 **선종 성지 순례 7일/8일**

7일 125만원
일정 : 인천-북경-정주-낙양-소림사-정주-무한-천주산-황해현-무한-광주-소관-광주-인천

8일 135만원
일정 : 인천-북경-석가장-정주-소림사-무한-천주산-황해현-무한-광주-소관-광주-인천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48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7일 16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65만원
콜롬보/센디/세갈보/담블라